



## 남해권 첨단 VTS\_AIS 연계망 구축

-해양교통안전망 강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운물류환경 개선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선박운항관리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위주의 해상 교통관제(VTS) 서비스 범위를 선박통항량이 복잡하고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남해안 해역까지 확대 하는 「남해권 VTS-AIS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선박안전과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 인천 등 14개 항만과 진도 등 15개소에 VTS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항만 및 인근 출입항로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종합적인 선박운항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항만과 주변해역을 연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통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해권 VTS 센터(부산, 부산신항, 여수, 마산, 제주)에 장거리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국 AIS 통합망을 연계한 선박통항안전관리 체계를 금년 말('09.12)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VTS 센터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연계하여 선박운항상황(VMS), 선박 등록·검사 및 선원정보, 기상·조류정보 등 이용자 중심의 해양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부산 가덕도에 무선통신(VHF-DSC) 원격 기지국을 신설하여 원격까지 VTS센터와 운항선박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상호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VTS-AIS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적인 선박통항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통항관리로 해운물류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VTS(Vessel Traffic Service)/해상교통관제시스템 :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통항관리 서비스
-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선박자동식별시스템 : 선박-선박/육상간 데이터통신을 통해 선명, 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식별하는 시스템

